<제1강> 책의 유통과 지식의 형성

1. 책에 관한 몇 개의 일화

1-1. 南朝 梁나라 元帝 이야기 : 도대체 책을 읽어서 무엇 하려는 것인가

o 元帝 : 武帝의 아들. 조카인 蕭察에게 배반당해서 죽음. 『文選』을 편찬한 昭明太子는 무제의 맏아들이었으나, 31세에 요절한 뒤 원제가 왕위를 물려받음. 14만 권에 달하는 책을 불살라 버리고 자결함. "문무(文武)의 도가 오늘 밤 끝나는구나!"

1-2. 허균 장서의 행방

- 허균의 장서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형성됨. 집안에서 전승된 것(부친, 형제, 장인 金光轍 등), 구득한 것(書僧, 燕行 등의 경로), 선물로 받은 것 등
- 자신의 원고를 모아서 문집을 편찬해 둠.
- 1618년, 역모 혐의를 받고 사형 당함. 그 뒤 허균의 장서는 어디로 갔을까. 芝峯 李睟光에게 전해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뒤는 알 수 없음.
- 허균의 책은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생각을 공유하는 무리들을 만들었을 것.
- 그 예로 公安派에 관한 허균의 기록을 들어보자. 그가 李贄의 『焚書』를 접한 것은 1615년 使行에서 처음 구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贄의 『藏書』는 1599년, 『焚書』는 1600년에 간행되었으니, 허균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의 책을 접한 셈이다. 게다가 그 이전에 원굉도에 관한 기록을 남겼으니, 그의 명청 공안파에 대한 접근은 이른 시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탁오의 저작이 1602년(만력30)과 1625년(천계5)에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허균이 구해서 본 것은 대단한 일.
- 이들 책은 지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전파됨.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학파에 속한 선비들이 모여서 책을 돌려 읽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임. 책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서로 구한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좋은 구절은 돌려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은 빌려서 베낌. 집안의 장서를 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함.
- 이덕무는 당대 경화벌열이었던 이서구의 집안 장서를 빌려 읽기도 했고, 박지원은 심념조의 만권루에서 책을 빌려보기도 했음. 심상규는 이의현 집안 소장본을 검토하고 평점을 해주었으며, 이서구는 이덕무에게 집안 장서에 대한 교정과 평점을 부탁했음.

권상신(權常愼, 1759~1825)의 기록에 의하면, 金相任, 임이주, 沈士能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 좋은 구절을 돌려가며 읽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 책은 이 집단을 통해서 유포됨.

2. 책을 읽는 순서

- 또 하나의 일화. 토마스 하디의 『테스』에 대한 기억. 책을 읽는 순서는 매우 중요함.
- 朱熹 :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 책을 읽는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교육 커리큘럼. 이는 그 커리큘럼을 받아들이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책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의 형성 혹은 지식의 전수와 관련이 있음.

3. 책을 읽는다는 것

- 책이란 무형의 지식을 유형화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
- 축적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삶과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독서는 道樂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기이기도 함. 독서가 실천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을 것.
- 程子 : "논어를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읽은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들은 논어를 읽지 않은 것과 같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